



손연재·최나연 '4년 뒤엔 내 세상'



손연재

◇손연재(18·리듬체조) = 이번 대회 리듬체조 개인전에서 5위를 차지한 손연재는 4년 뒤를 기약하기에 손색이 없는 기량을 확인했다. 곤봉 종목에서의 부진으로 3위에 불과 0.225점 뒤진 손연재는 "나는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지 이제 2년밖에 안되지만 동메달을 딴 류보 차르카시나(벨라루스)는 성인 무대에서 8년을 뛴 선수"라며 경험만 쌓는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최나연(25·골프) =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열리는 골프에서 한국의 에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다. 세계 랭킹 3위의 최나연은 올해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지

2016년 리우올림픽 빛날 종목별 기대주들

제30회 런던올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시선은 벌써 4년 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향하고 있다. 종목별로 4년 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인공 역할을 할 유망주들을 소개한다.

양궁 세계신 김법민·배드민턴 성지현 유망

금까지 LPGA 투어에서 6승을 거뒀다. 최나연은 이번 런던올림픽 현장을 직접 찾아 배구, 핸드볼 경기 등을 응원하면서 4년 뒤 자신이 직접 펼 무대를 간접 체험하기도 했다.

◇김법민(21·양궁) =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법민은 랭킹라운드에서 698점을 쏘아 종전 세계기록을 넘어섰다. 임동현이 699점을 쏘면서 세계기록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지만 4년 뒤를 기약하기에 충분한 기량을 보여준 셈이다. 개인전 8강에서 다사오상(중국)에 져 4강 진출에 실패한 김법민은 4년 뒤에는 시상대 맨 위에 서겠다는 각오다.

◇성지현(21·배드민턴) =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대표팀 성하국 감독의 딸인 성지현은 지난해 12월 세계배드민턴연맹 슈퍼시리즈에서 세계 1위 왕이훙(중국)을 꺾는 이변을 일으킨 기대주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재도전한다면 충분히 금빛 스매싱을 기대할 만하다.

◇원정식(22·역도) = 노메달에 그친 한국 역도를 4년 뒤 재도약하게 해줄 기

대주다. 남자 69kg급에서 7위에 머문 원정식은 사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비밀 병기'였다. 최근 기량이 급성장해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합계 310kg을 들고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는 326kg로 경종 뛰었기 때문이다.

◇김희훈(21·체조) = 이번 대회에서 한국 체조에 첫 금메달을 안긴 양학선의 뒤를 이을 선수다. 단체전에서 6개 종목에 모두 뛸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철봉을 제외한 5개 종목에서 소중 한 경험을 쌓았다. 현재 개인종합을 소화할 선수가 부족한 한국 체조의 현실에서 볼 때 4년을 두고 육상에 나설 만한 재목이다.

◇김희진(21·배구) = 한국 여자배구는 김희진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어린 나이에도 활연주와 번갈아 라이드 공격수 자리를 맡아 제 몫을 다했다. 올해 24살인 '월드스타' 김연경이 4년 뒤에 절정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희진의 성장까지 뒷받침된다면 한국 여자배구는 메달에 도전할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나연

◇권한나(23·핸들볼) = 조별리그 5경기에서는 교체 선수로 간간히 나와 9골을 넣는데 그친 권한나는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러시아전부터 주전으로 출격했다. 이날 혼자 6골을 터뜨려 한국의 3-4골 뒤에서 도팀의 주포 노릇을 해내며 강재원 감독의 '히든카드'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민(23·요트) = 2010 광주 아시안게임 레이저급에서 한국 요트에 첫 금을 안긴 선수다. 187cm에 80kg의 건장한 체격은 유럽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20대 후반에 전성기가 오는 요트 종목의 특성상 4년 후를 기약하기 알맞은 선수다. /연합뉴스



13일(한국시각) 미국 오퀴하이오주 실베이니아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마 트래디 클래식 대회 마지막날, 유소연(21·한화)이 18번홀에서 어프로치를 한후 갤러리들의 박수에 손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어떤 처벌 받아

가장 무거운 징계는 '메달 박탈' IOC, FIFA 최종 결정 따를듯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3·4위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23·부산)가 징계를 받게 될지,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개인과 각 나라의 축구협회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박탈'이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승부조작이나 뇌물 등 무거운 죄질에 대해서도 '박탈'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었다.

가장 약한 징계는 '경고'다. 경고는 규정 위반 사실을 알려 추후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알리는 수준의 징계다. 다음은 '경책'이다. 규정 위반 사실이 공식적인 문서로 각 협회와 개인에 통보된다. 경책보다 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면 '벌금'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FIFA가 개인, 협회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는 '박탈'이다. 박탈 징계를 받은 협회, 선수는 메달이나 트로피 등 성적의 상징물과 함께 우승으로 얻게 된 모든 이

익을 빼앗기게 된다. 최근 징계를 내린 사례로 FIFA는 지난 4월 오만 축구협회에 1만2000스위스프랑(약 1400만원)의 벌금을 매긴 적이 있었다.

지난 2월 한국을 상대로 올림픽 최종예선을 치르던 오만의 홈 관중은 물건을 그라운드에 집어던지면서 약 7분 동안 경기를 중단시켰다. 경기에 직접적으로 방해로 끼치고도 오만 축구협회가 받은 징계는 벌금이 불과했다.

박종우의 징계에 대한 열쇠는 FIFA가 쥐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FIFA의 징계 수위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FIFA는 16일까지 박종우가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한 축구협회에 통보한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FIFA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감독에 하석주

하석주 아주대 감독이 전남 드래곤즈의 새 사령탑을 맡는다. 전남은 10일 "정해성감독의 후임으로 하석주 아주대 감독을 선임했다. 수석 코치는 노상래 코치가 맡는다"고 발표했다.



1990년 부산 대우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하 감독은 포항 스틸러스와 일본 J리그에서 활약했으며, 태극 마크를 달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사상 첫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3년 포항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하 감독은 지난 2008년 전남에서 수석코치를 역임한 뒤 모교인 아주대를 맡아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14일 구단 사무실에서 상견례를 갖는 하 감독은 오는 19일 경남과의 경기에서 감독 데뷔전을 치른다. 한편 정해성 전 감독은 지난 10일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퇴를 했다. 전남은 올 시즌 5승8무14패를 기록하면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 중·고생 골프대회 17일까지 무안컨트리클럽

전국 골프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제7회 전국 중·고생 골프대회가 오늘부터 17일까지 무안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무안도지사배로 지난 13일 열린 이번 대회에는 1320명의 전국 중·고생 골퍼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우수선수에게는 1등

50점, 2등 30점, 3등 20점, 4~10등 15~5점의 국가대표·상비군 선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국내 타 대회 참가자격 부여, 골프장 이용시 개별소비에 면제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방목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대회 2~3개월 전부터 선수와 임원, 학교 관계자 등 연인원 2만5000여명이 무안과 인근지역을 방문해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버디만 9개 유소연 시즌 첫 승

LPGA 제이미마 클래식...신지에 7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루키' 유소연(22·한화)이 제이미마 트래디 클래식에서 시즌 첫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유소연은 13일(한국시각) 미국 오퀴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 골프장(파71·642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9개를 쏟아내며 9타와 62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함께 20언더파 264타를 적어낸 유소연은 2위 안젤라 스탠퍼드(미국·13언더파 271타)를 7타차로 따돌리는 완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은 19만5000달러.

지난해 US여자오픈을 제패한 유소연은 올해 LPGA 투어 정규멤버로 입회한 뒤 첫 승을 올렸다. 유소연은 신인왕 포인트에서도 150점을 /연합뉴스

산행안내

해와 및 섬은 개개가 불가합니다. (육지만 가능)

8월 15일(수)

- ▲광주도요신악회 8월 15일(수) 6시3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광주도요신악회 협조
- T. 010-3608-4267, 010-3642-2849
- ▲광주청학악회 8월 15일(수) 7시 5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광주청학악회 협조
- T. 011-646-3450, 011-259-0284

8월 16일(목)

- ▲광주도요신악회 8월 16일(목) 6시3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광주도요신악회 협조
- T. 010-3608-4267, 010-3642-2849
- ▲광주청학악회 8월 16일(목) 7시 5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광주청학악회 협조
- T. 011-646-3450, 011-259-0284

8월 18일(토)

- ▲남도산사당 8월 18일(토) 6시3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남도산사당 협조
- T. 010-4741-4433
- ▲광주도요신악회 8월 18일(토) 6시3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광주도요신악회 협조
- T. 010-3608-4267, 010-3642-2849
- ▲광주청학악회 8월 18일(토) 7시 5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광주청학악회 협조
- T. 011-646-3450, 011-259-0284

8월 19일(일)

- ▲오산회 8월 19일(일) 8시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오산회 협조
- T. 010-5152-2629, 011-606-4366
- ▲광주도요신악회 8월 19일(일) 6시3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광주도요신악회 협조
- T. 010-3608-4267, 010-3642-2849
- ▲광주청학악회 8월 19일(일) 7시 5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광주청학악회 협조
- T. 011-646-3450, 011-259-0284

8월 20일(월)

- ▲광주도요신악회 8월 20일(월) 6시3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광주도요신악회 협조
- T. 010-3608-4267, 010-3642-2849
- ▲광주청학악회 8월 20일(월) 7시 50분 연주회(광주, 비엔날레 주자전) 경유 *다듬이: 광주청학악회 협조
- T. 011-646-3450, 011-259-0284

수익성 최상원룸 구매

- *2억8천만원 매대가 월500만원 수입!
- *신규 리모델링 원룸 17개 (상하방 별도, 공실률 0)
- *지하 1층 지상 4층(453㎡)
- T. 010-2659-9230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 제출공고)

2012년 8월 13일

미래 레미콘 (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리천 1707-5

대표이사 김경중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 제출공고)

2012년 8월 14일

김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리천 1707-5

대표이사 김경중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 제출공고)

2012년 8월 14일

김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리천 1707-5

대표이사 김경중